

카이아, 일본블록체인협회(JBA) 정회원
합류... ”일본 시장 내 입지 공고화”



2025년 6월 20일(금)—카이아 DLT 재단(Kaia DLT Foundation, 이하 카이아)이 일본블록체인협회(Japan Blockchain Association, 이하 JBA)에 블록체인 메인넷으로는 최초로 정회원 합류했다. 카이아는 앞으로 회원사들과 일본 웹3 사업 환경 조성, 규제 준수에 협력한다. 이와 함께, 현재까지 총 1억 명 이상 누적 사용자를 보유한 라인(LINE) 메신저 기반 미니 디앱(Mini Dapp) 사업과, 규제 확립 후 유망한 엔화 스테이블코인 등 일본 내 카이아 블록체인 비즈니스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대내외 소통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JBA는 일본 블록체인 산업 발전과 안정적인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2014년 설립된 업계 대표 단체다. 해당 협회는 정책 제언, 대(對)정부/규제 기관 협의, 자율규제 가이드 라인 마련 등의 활동을 전개 중이다. 특히 협회 내 분과를 두고 주기적으로 세율, 회계, 대체불가토큰(NFT) 산업 등 연구를 진행해, 일본 금융청(Financial Supervisory Agency, FSA)과 현지 정책 담당 기관에 전달하고 있다. 이로써 디지털 자산 관련 세율을 인하 제언 활동과 논의 진척에 기여한 바 있다.

카이아는 올 초부터 일본 최대 사용자를 보유한 라인 메신저 상에서 사용자들이 쉽게 블록체인 서비스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디앱 포털(Dapp Portal)을 운영 중이다. 사용자들은 카이아 블록체인을 통해 구동되는 83개 이상의 미니 디앱을 활용 가능하다. 또한, 세계 최대 스테이블코인 업체

보도자료

테더(Tether)를 포함한 다양한 협력사들과 국내와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 스테이블코인 관련 사업도 모색 중이다.

일본블록체인협회는 “카이아가 JBA에 정회원으로 참여하게 된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한다.”라며, “협회는 앞으로 카이아 DLT 재단과 함께 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향해, 식견과 경험을 공유하면서 임해 나갈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카이아 DLT 재단의 서상민 의장은 “카이아는 일본인 70%가 사용하는 라인(LINE)에서 웹3 생태계를 구축해 왔으며, 이번 JBA 합류는 카이아의 규제 준수 및 소비자 중심 블록체인 서비스 구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카이아는 JBA를 포함한 현지 파트너사, 개발자들과의 협력으로 혁신을 이어갈 것이며, 강력한 잠재력을 가진 일본과 한국, 아시아에서의 성공을 통해 세계적으로 각광 받는 블록체인으로 거듭나겠다.”고 덧붙였다.

###

일본블록체인협회(JBA) 소개

블록체인 기술의 건전한 보급, 발전에 공헌하기 위해 2014년에 설립된 업계 단체.

본사 소재지: 도쿄도 미나토구 아카사카 9초메 7-1 도쿄 미드타운·타워 18층

대표 이사: 카노 유조

설립 연월일: 2014년 9월

공식 사이트:<https://jba-web.jp>

문의: <https://jba-web.jp/contact>

카이아(Kaia) 블록체인 소개

카이아(Kaia)는 웹3의 가치와 기술, 프로젝트들을 해석하고 혁신해 전세계 사용자들에게 더 편리한 블록체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안된 고성능 퍼블릭 블록체인이다. 카이아는 2024년 양대 IT 기업 카카오(Kakao)와 라인(LINE)이 개발한 클레이튼(Klaytn) 및 핀시아(Finschia) 블록체인 거버넌스 멤버들의 통합 합의를 통해 출범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2억 5천만 명 이상의 잠재적 사용자 풀을 보유한 아시아 최대 웹3 생태계를 구축했다. 카이아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모든 사용자들은 웹2 메신저 서비스들에 준하는 빠른 속도로 웹3 서비스들을 활용하여 상호간의 연결, 창조, 협업 활동을 강화하며, 이를 통해 누구나 생태계 기여자가 될 수 있다.

보도자료 관련 문의처:

Kaia DLT Foundation | PR & Communications Lead

김영재(Kevin Kim)

kevin.kim@kaia.io